

[CES 2019] SK그룹 등 다양한 혁신기술 선배 04·05

코스피	2063.28 (-1.43)	코스닥	683.34 (+3.60)
금리 (국채 3년)	1.80 (-0.01)	환율 (원·달러)	1118.30 (-3.80) (10일)

최저임금 부작용 인정한 文 “올 국정목표,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올해 국정운영의 가장 큰 목표는 ‘일자리’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숨가쁘게 달려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정에 이어 올해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마침표를 찍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다. 연초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에 대한 답장도 북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전한 발표문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 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고용 지표 부진’을 전체의 3분의 1을 보낸 지난 임기 중 가장 아픈 대목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고용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 앞으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고용지표부진 가장 아픈점 보완 통해 고용 양·질 확대 성장 위한 혁신 수차례 언급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예상

풀어나가야 할 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충분히 보완해서 지난해와 달리 훨씬 노련한 모습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이 악화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제조업 부진에 이은 서비스업의 동반 부진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인상에 따른 역효과 ▲체감 고용 하락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별대책, 제조업 혁신 통한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혁신”을 통한 성장도 수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온 만큼 올해부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에 총 1조5000억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에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란 견해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머지 않아 2차 북미회담을 위한 북미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미회담과 연동돼 있어 북미회담이 먼저 이뤄진 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전략자산 등에 대한 주 변국의 상환변화와 관계없이 한국과 미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의 지휘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의해 와 있는 것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도 한미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는 김 위원장

도 잘 알고 있다”전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이 재개지를 밝힌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라 북한이나 똑같다”면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으로 국제 경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세금 너무 많이 걷혔다... 28조 초과징수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국세수입 279조9000억 연간 목표액 초과 달성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100%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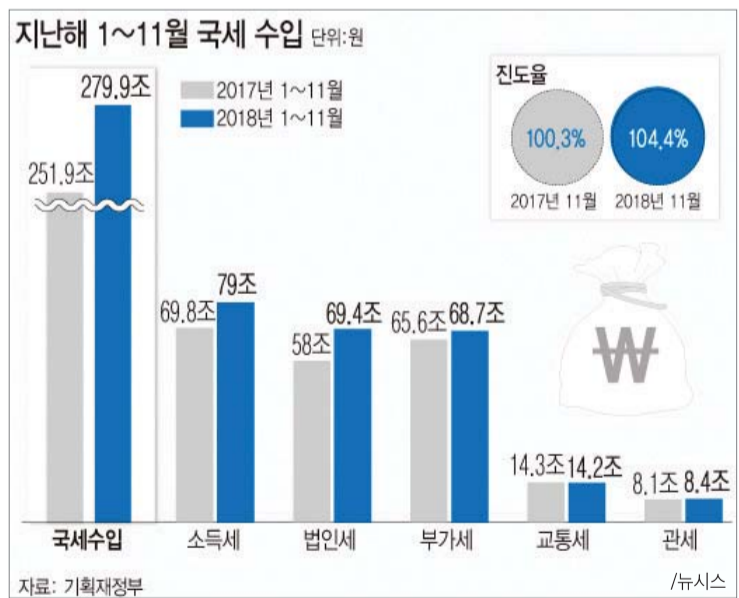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2018년 1~11월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04.4%를 기록했다. 2018년 1년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수입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같은 달 법인세 수입은 원천분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7000억원으로 2017년 11월보다 9000억원 늘었다.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사업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작년 11월까지 연간 목표액 280조 2000억원 가운데 93.0%인 260조 6000억원이 집행됐다.

11월까지 목표액 257조9000억원(92.0%)을 약 2조7000억원

(1.0%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월 기준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는 2000억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재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세계 최초 폴더블폰 ‘플렉스파이’ 체험해보니 무겁고 뻣뻣하지만 ‘혁신은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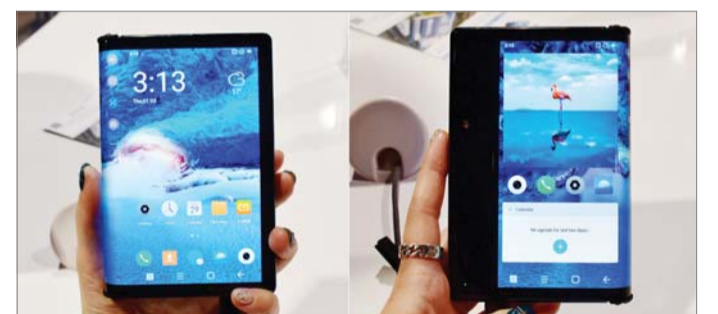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로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19’에서 폴더블폰을 공개했다.

기자는 9일(현지시간) 오전 로올 부스를 찾았다. 폴더블 폰 ‘플렉스파이’가 전시된 공간에는 제품을 만져보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플렉스파이가 작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도 많았다.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5분가량 기다려 세계 최초 폴더블 스마트폰 플렉스파이를 직접 만져봤다. 펴져 있는 모습은 흔히 보던 태블릿과 같다. 이 제품은 7.8인치 크기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

기존 태블릿과 다른 것은 화면이 접히는 점이다. 위아래 부분을 잡고 화면을 접어봤다. 다소 뻣뻣하게 접히는 느낌이다.



플렉스파이를 접었을 때 앞 화면(왼쪽)과 뒷 화면의 모습. /구서윤 기자

7.8인치 태블릿과 비슷 뒷화면 베젤 두꺼워 답답 앞뒤 화면켜져 놀리기도 주머니에 넣는 것도 무리

달리 뒷 화면은 베젤이 두꺼워 다소 답답한 느낌이다.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려고 들고 있을 때는 앞뒤 화면이 다 보여 있는 탓에 간혹 뒤에 있는 화면의 버튼이 눌리기도 했다.

또한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 어스마트폰으로 쓰기에는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머니에 넣는 것도 무리였다.

두께를 비교해보기 위해 기자가 사용 중인 삼성 갤럭시 S9와 나란히 들고 사진을 찍어봤다. 스마트폰 3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면에 계속>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